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Weekend
The Kwangju Ilbo

혁신도시의 중심축인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12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7월 26일 (음력 6월 24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6(土)	27(日)
구름많고 한 때 비 24/31℃	비 25/32℃

News

- 고민 많은 무안공항 ②
- 김옥환 목사 스토리 ③
- 올림픽 태극전사 결단식 ⑱

Books

- '서양-조선'의 첫 만남 ⑭

Entertainment

- 가요계 '테크토닉' 열풍 ⑧
- 공포영화 어디로 갔나?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낙지 ⑬

우일학원 창립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거제 앞바다 '411년 前 거북선 찾기' 탐사선 동승 르포

탐지 신호음 마다 긴장·실망 반복 성공확률 1%미만 불굴의 무한도전

발견땐 해양 고고학 대사건 전남 충무공 사업에 자극제

1597년(선조 30년) 음력 7월 15일 칠천량(漆川梁). 현재 행정구역으로 경남 거제시 하청면 앞바다인 이곳에서 삼도 수군통제사 원균은 조선 수군의 주력부대를 이끌고 좁은 해역을 통과하던 중 왜적의 기습공격을 받았다. 결과는 처참했다. 거북선 7척을 포함한 전선 169척 중 157척이 침몰·격파되고 1만 명의 수군이 목숨을 잃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다.

그로부터 411년. 거제도 앞바다에서는 수장된 거북선을 인양한다는 지극히 어렵지만 가슴부푼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가 야심차게 전개하고있는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중 하나다.

만약 수장된 거북선이 온전한 선체를 수면 위로 드러내게 된다면, 혹은 파손된 채로라도 인양된다면 이는 세계 해전사를 뒤집어 놓을 세계 최초의 철갑선의 존재를 입증할 뿐 아니라 21세기 해양 고고학의 대사건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사업은 음파탐지기와 잠수부 육안 확인작업으로 해저 퇴적토를 뒤지는 성공 가능성 1% 미만의 사업이기도 하다. 성공가능성 1% 미만, 인내심과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모하지만 가치있는 일에 도전하는 경남도에 비해 임진왜란과 충무공 이순신장군 관련연구·사업에서 한발 뒤쳐지고 있는 전남으로서는 좋은 자극제이기도 하다.

'거북선 찾기' 출항식은 지난달 2일 경남 거제군 하청면(河淸面)에 딸린 9.1㎢의 작은 섬 칠천도(七川島)에 열렸다. 기자가 탐사현장을 방문한 건 탐사 54일째인 24일. 양식장 관리선을 개조한 9t짜리 '거북선 탐사선'은 거창한 사업내용에 비해 좀 초라해 보였다. 이 배에는 경남발전연구원 역사조사팀 연구원 1명과 탐사전문업체인 (주)한국해양과학기술 소속 직원 4명 등 5명이 승선해있었다.

고주파 해저지층 탐사기와 해저금속 탐지기, 탐사 해역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위성 항법장치를 갖춘 이 배는 현재 거북선 침몰가능성이 가장 높은 칠천수로를 뒤지고 있었다.

김택성(29) 대원이 '고주파 탐지기' 화면을 쳐다보며 이상물체로 추정되는 화면이 나타나면 메모장에 경도와 위도를 적었다. 칠천량 수로를 헤집기 시작한 지 2시간째. '고주파 탐사기' 화면에 볼록한 형체가 떴다. 이상물체가 나타났다는 신호다. 순간 탐사선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곧이어 실망스런 표정으로 바뀌었다. 단순한 돌로 판명된 것이다. 이날 탐사는 8시간 동안 이뤄졌다. 김선환(46) 현장조사 팀장은 "해저면에 대한 영상조사, 지층탐사가 이뤄진 뒤에는 데이터를 판독관에게 보내 정밀 분석 과정을 거친다"며 "선체의 잔해나 무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감지되거나 징후가 보이면 잠수부를 투입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상물체가 감지된 145곳의 바다의 밑바닥을 확인했으나 아쉽게도 해저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4일 경남 거제시 하청면 칠천 수로에서 탐지기가 이상신호를 보내온 해저구조물을 확인하기 위해 잠수요원들이 투입되고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위성 '아리랑 2호'가 찍은 우리 땅 독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2호가 촬영한 독도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독도 사진은 아리랑 2호가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 사이에 촬영한 해상도 1m급 흑백영상과 4m급 컬러영상을 합친 것으로 독도를 정기 운항하는 '삼봉호'의 모습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연합뉴스

2분기 GDP성장률 4.8%…1년새 1%P 급락

민간소비 4년만에 최악

韓銀 발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민간소비는 4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건설업 성장률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등 내수 부진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08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8%, 작년 동기 대비로는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작년 2분기 1.7%에서 3분기 1.5%, 4분기 1.6% 등을 유지했으나 올 들어 1분기 0.8%로 반 토막 난 뒤 2분기 연속 1%를 밑돌았다.

작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1분기 5.8%에서 2분기에 1%포인트나 급락했다.

한은은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2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1.0%, 작년 동기 대비 5.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런 전망을 각각 0.2%포인트 밑도는 수치다.

한은은 예상보다 민간소비와 건설업이 부진한데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경제활동 별로 보면 제조업은 음식료품, 섬유가죽제품 등이 부진했으나 반도체 및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 등 정보통신(IT) 제조업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 전기 대비 2.2% 성장했다.

하지만 건설업 성장률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부진이 지속하면서 전기 대비 -2.4%를 나타내 2001년 4분기(-5.0%)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서비스업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감소하면서 전기 대비 0.5% 증가에 그쳤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민간소비는 서비스와 비내구재 소비지출의 증가세가 둔화한데다 내구재와 준 내구재의 소비지출도 줄어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이는 2004년 2분기(-0.1%) 이후 4년 만의 첫 감소세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늘어 전기 대비 1.0% 증가했으나 건설투자는 0.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내수 증가율은 0.3%에 그쳤다. /연합뉴스